

한국인 화자의 영어 발음 오류에 관한 음향적 분석*
-비음화와 설측음화를 중심으로-

Acoustic Analysis of Koreans' Production Errors in English
-with reference to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김 미 혜** · 강 선 미** · 김 기 호**
Kim Mi-hye · Kang Sun-mi · Kim Kee-ho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acoustic differences in English speech production between English native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Korean speakers seem to produce errors by over-applying the Korean phonological rules(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to English speech under the conditions comparable to those of Korean which contain nasal+lateral or lateral+nasal sequences. Being based on this prediction, the experimental data is grouped into three sets, [n]+[l] sequence, [l]+[n]sequence, and [m]+[l] sequence.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speakers usually nasalize or lateralize the target words or phrases in every three categories while English natives don't. In set A([n]+[l] sequence), both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were found in [n]+[l] sequence, the same circumstances where both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can be placed as in Korean. In the case of set B([l]+[n] sequence), only lateralization is observed. It is because the nasalization never occurs in the sequence of l-n in Korean. There is no lateralization in set C([m]+[l] sequence), because only nasalization occurs in the sequence of m-l in Korean. This results reconfirmed that the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rules in Korean deeply influence on the English production data. Korean speakers need to be taught not to over-apply Korean phonological rule to English production for accurate pronunciation.

Keywords: nasalization, lateralization, production errors

1. 서 론

영어를 배우는데 있어서의 의사소통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담화시 혼란의 여지없이 정확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화자가 정확한 발음을 통해 원활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들이 영어 구현시에 발음상 쉽게 오류를 범하는 음운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규칙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들의 실제 영어 발음 구현에서 나타나는 음향적인 특징을 원어민들의 음향적 특징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확한 발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효과적인 발음 습득에의 응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쉽게 관찰되는 음운 동화 현상으로 비음화가 있다. 동화 현상은 특정 소리가 인접한 다른 소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으로 조음을 쉽게 하기 위한 경제성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전상범, 2004). 그러나 이러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은 언어마다 다르다. 이처럼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있으나 그 적용 환경이 다른 음운 규칙을 적용시켜야 하는 경우에 외국어 학습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한국어와 영어에서 적용환경이 다른 비음화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들이 겪는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들은 한국어에만 적용되는 음운규칙의 환경이 영어에서 나타날 때 영어에도 한국어의 음운규칙을 확대하여 적용시키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한국어에만 있고 영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음운 규칙인 설측음화의 경우 외국어 학습자들이 만들어 내는 오류를 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2. 선행연구

한국어의 설측음화는 [n]이 [] 앞이나 뒤에 위치할 때 [n]이 []로 바뀌는 완전동화이다. []+[n]의 연쇄에서 설측음화가 일어나는 예로 ‘찰나’ ‘칼날’ ‘줄넘기’ 등이 있으며, [n]+[]의 연쇄에서 설측음화가 일어나는 예로는 ‘신라’ ‘난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측음화의 예외적인 경우로 ‘결단력’ 혹은 ‘생산량’에서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 설측음화 대신 비음화가 나타나 [결단녀], [생산냥]으로 발음된다. 비음과 설측음의 연쇄에서, ‘신라’, ‘난로’에서와 같이 설측음화가 일어나기도하고, ‘결단력’ 혹은 ‘생산량’에서와 같이 비음화가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 신지영 & 차재은(2003)은 단어 내부에서 [n]-[]의 연쇄가 나타날 때에는 설측음화가 적용되며, [n]과 []이 단어 내의 어근과 접사의 경계에 위치하는 환경에서는 비음화가 적용된다는 규칙을 설정한다.

한편, 한국어의 비음화는 크게 세 가지의 환경에서 나타난다. 먼저, /락원/이 [낙원]으로 발음되고 /래일/이 [내일]로 발음되는 것처럼 두음에서 설측음을 피하고(initial liquid avoidance rule) 비음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국란/이 [궁난]으로 발음되고 /범랑/이 [범냥]으로 발음되는 예에서 보듯이 저해음이 비음화(nasalization of obstruents)되는 경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금리/가 [금니]로, /등록/이 [등녹]으로 구현되는 것과 같이, 비음 뒤에 나타나는 설측음이 비음화 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어에서 이러한 비음화와 설측음화가 적용되는 범위는 하나의 억양구 내부에서이며, 억양구를 넘어서게 되면 음운 규칙의 적용이 차단된다.

(1) a. /맛있는 라면/ - [마딘는 나면]

b.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을 소개합니다/ - [대통령 // 링커늘]

(1a)의 예에서 보듯이, 선행하는 비음과 뒤따르는 설측음 사이에 액센트구 (AP)의 경계가 위치해도 비음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만, (1b)에서와 같이, 비음과 설측음 사이에 억양구의 경계가 개입되면, 뒤따르는 단어 ‘링크인’은 비음화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설측음화의 경우도 위 예와 유사하게 액센트구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억양구의 경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한국어에 비해 제한적이며, 설측음화의 음운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가지는 비음과 설측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은 영어의 비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이다. 영어에서는 비음 [n] 앞의 모음이 비음의 성질을 띠게 되는 모음의 비음화 현상만이 존재하며, 비음 뒤의 설측음이 비음화되는 음운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존재하는 음운 규칙이나 그 적용 환경이 영어에서는 보다 제한적인 비음화와, 한국어에만 있고 영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음운 규칙인 설측음화의 적용 환경이 영어 발화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 한국인들이 어떠한 오류를 겪는지 확인하고자 실제 발화를 녹음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

한국인들의 비음화를 연구한 기존의 논문 (이희천, 2002, 전상훈, 2003)들은 한국인들의 여러 발음 오류들 중 일부로 비음화나 설측음화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음화와 설측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의 구체적인 구분 없이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음향적 분석 없이 청취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비음화와 설측음화의 음운 현상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음운 환경을 세 가지-[n]+[l]의 연쇄, [l]+[n]의 연쇄, [m]+[l]의 연쇄-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이 액센트구 내부에 위치하거나 혹은 액센트구의 경계에 위치하도록 단어 및 구를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영어 발화를 녹음하고, 실제 발화의 스펙트로그램상의 음향적 차이를 원어민들의 발화와 비교 분석하였다.

3. 발화 실험

3.1 실험 문장 및 실험 절차

본 실험에서는 비음과 설측음, 혹은 설측음과 비음의 연쇄에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발음의 오류를 나타내는 지 음향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비음+설측음, 설측음+비음의 연쇄가 포함된 단어나 구를 실험 자료로 구성하였다. 실험 자료는 한국어 발화에서 비음화나 설측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따라 세 개의 세트- [l]+[n]의 연쇄, [n]+[l]의 연쇄, [m]+[l]의 연쇄-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세트는 25 개의 단어나 구를 포함한다. [l]+[m]의 연쇄는 한국어에서 소리의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이므로 본 실험에서 배제하였다.

표 1. A, B, C 세트의 실험 자료 - 단어 및 구

A.	[n]+[l] sequence	only, spoken language
B.	[l]+[n] sequence	illness, all night, full name, foulness
C.	[m]+[l] sequence	Hamlet, form letter

또한, 실제 발화 상황과 유사한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음성 구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세트의 25 개 단어들 중 10 개의 단어들을 각각 선택하여, 해당 단어를 포함한 문장을 구성하였다.

표 2. A, B, C 세트의 실험 자료 - 문장

A.	[n]+[l]	Flying is the <i>only</i> way to go. They <i>mainly</i> cater for the festival.
B.	[l]+[n]	Most childhood <i>illnesses</i> can be prevented. He is a <i>well-known</i> painter.
C.	[m]+[l]	It was an <i>extremely</i> difficult decision. We were <i>warmly</i> welcomed by the villagers.

실험에 참여한 영어 원어민 화자는 모두 세 명으로 두 명의 미국 화자와 한명의 캐나다 화자로 구성된다. 한국인 피실험자들은 모두 중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로 여섯 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TOEIC 시험에서 600~800 점대의 점수를 가진 대학생들로 구성하였다. 모든 실험 문장은 임의의 순서로 섞어 제시되었으며,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자료를 읽도록 요구하였다. 실험은 소음이 적은 연구실에서 DAT(Digital Audio Tape) TCD-D100과 Sony ECM-MS907 마이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모두 원어민의 발화 630개와 한국인 발화 1260 개로 총 1890 개의 발화가 녹음되었으며, wavesurfer 프로그램을 통해 소리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도출하였다.

3.2 실험 결과

3.2.1 영어 원어민 화자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A, B, C 세트의 발화 모두에서 비음과 설측음의 동화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각각의 분절음을 순차적으로 충분히 구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원어민 화자가 비음화와 설측음화를 일으키지 않고 단어나 구를 구현한 실제 발화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준다. <그림1>은 A세트의 단어 'spoonlike'에서 n과 l의 연쇄를 구현한 발화의 예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n의 구현 부분과 l의 구현 부분을 묶고 가운데 선으로 구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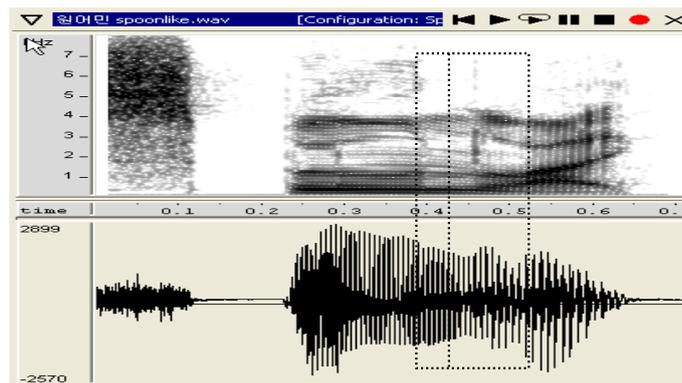


그림 1. A세트 원어민의 'spoonlike' 발화 스펙트로그램

<그림2>는 B세트의 구 'feel nervous'에서 l과 n의 연쇄를 구현한 예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각 구간은 l이 구현된 부분과 n이 구현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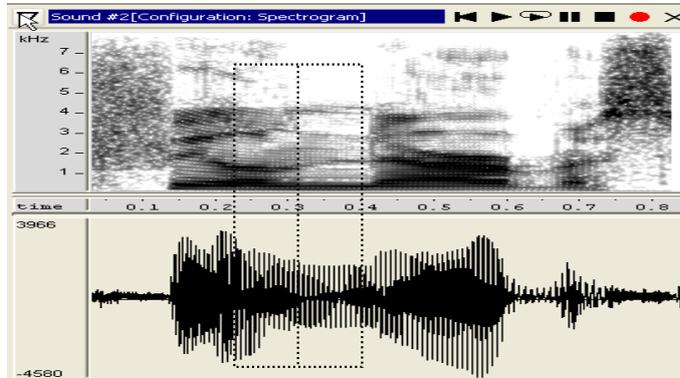


그림 2. B세트 원어민의 'feel nervous' 발화 스펙트로그램

다음 <그림 3>은 C세트의 단어 'streamline'에서 m과 l의 연쇄를 구현한 예이다. 점선 구간은 각각 m이 구현된 구간과 l이 구현된 구간을 표시한다.

위의 세 그림에서 보듯이 원어민 발화에서는 스펙트로그램 상 낮은 주파수 영역에 비음 포먼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1>과 <그림 3>과 같은 비음-설측음의 연쇄에서는 비음 주파수 다음에 설측음의 특징인 F1과 F2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 비음과 설측음이 연속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설측음-비음의 연쇄에서는 비음 포먼트의 구간이전에 설측음으로 인해 F1, F2가 낮아지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 설측음과 비음이 연속적이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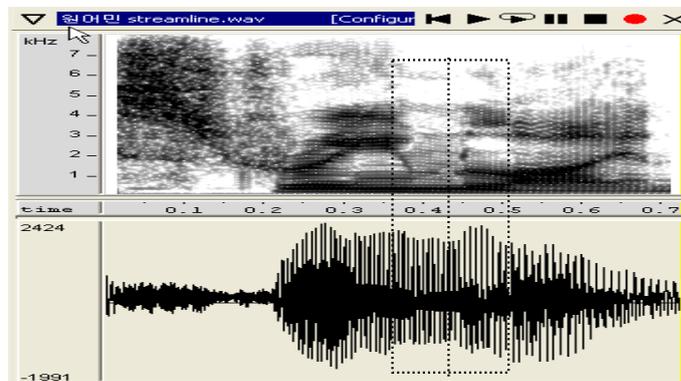


그림 3. C세트 원어민의 'streamline' 발화 스펙트로그램

3.2.2 한국인 화자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A, B, C 세트의 발화 모두에서 비음이나 설측음의 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4>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잘못된 발음으로 실험 자료를 발화한 비율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A, B, C 세트의 왼쪽 막대는 발화 자료가 단어나 구인 경우를 나타내며, 오른쪽 막대는 목표어가 문장 내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며 세로축은 백분율을 나타낸다.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단어나 구 발화에서는 유창성이 보다 낮은 화자의 경우, 음절 하나하나 천천히 읽는 느린 발화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경우에 비음과 설측음 사이에 억양구가 개입되어 비음화나 설측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미리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억양구의 경계가 비음화와 설측음화 현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해당 단어나 구 발화시 비음과 설측음 사이에 억양구의 경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발화 수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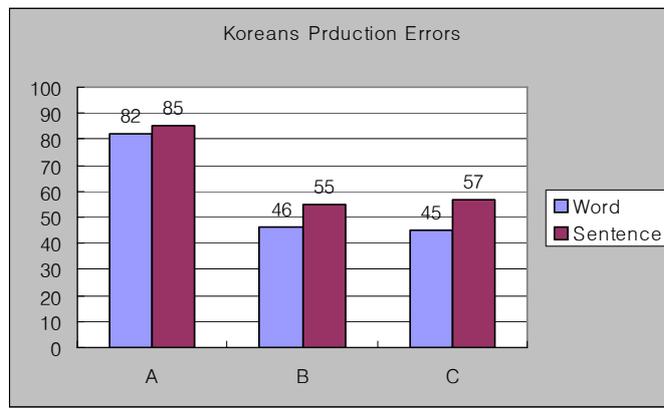


그림 4. 각 세트별 한국인이 오류 발화 비율

A 세트에서는 전체의 13%의 발화에서 억양구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swan lake'라는 구를 천천히 구현한 화자의 발화에서 n과 l 사이에 억양구가 구현되는 것이 발견되었고, 또한, 'sunlamp'와 같은 단어 내에서도 두개의 형태소 사이에 짧은 휴지 구간이 나타나는 경우 역시 드물지만 관찰되었다. 억양구나 휴지라는 환경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동화현상이 나타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배제하였으며, 억양구나 휴지구간 없이 비음과 설측음의 연쇄가 구현된 A세트의 발화들 중 82%에서 동화현상이 관찰되었다. A세트의 경우 나타난 82%의 발음 오류는 비음화로 구현된 발화 33%와 설측음화로 구현된 발화 49%를 포함한다. A세트의 발음 오류 결과는 논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B세트의 단어 및 구의 발화에서는 16%의 발화에서 억양구나 휴지 구간이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발화 중 46%에서 발음 구현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B세트에서 나타난 오류는 모두 설측음화이며, 비음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C세트의 경우, 19%의 발화가 억양구 및 휴지구간의 개입으로 인해 제외되었으며, 45%의 발화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오류 발화는 비음화 된 발화로 나타났으며 설측음화는 발견되지 않

았다.

또한, A, B, C 세트 모두에서 한국인들은 문장 발화시 단어 발화에서보다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었다. 단어나 구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화되는 경우, 화자들은 해당 단어에 더 주의를 기울여 발화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단어나 구가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화자들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문장 발화에서 더 많은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문장 발화는 단어 발화 보다 실제 대화 상황과 더 유사하기 때문에, 문장 발화 실험의 결과가 한국인들이 실제 영어 대화 상황에서 구현하는 오류들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5-8>은 한국인들이 구현한 실제 오류 발화의 스펙트로그램과 파형을 제시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낸다. <그림 5>와 <그림 6>은 A세트에서의 한국인의 발화 오류를 보여준다. 왼쪽의 <그림 6>은 설측음화를 일으킨 발화이다. 낮은 주파수대에 비음으로 인한 포먼트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모음 바로 뒤부터 설측음으로 인해 F1과 F2가 낮아지는 구간이 관찰된다. 오른쪽의 <그림 7>은 A세트의 발화중 비음화를 일으킨 발화이다. 설측음이 충분히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F1과 F2가 낮아진 구간이 관찰되지 않으며, 낮은 주파수대에 위치한 비음 포먼트 구간이 길게 관찰되는데, 이는 원래의 비음 구간과 설측음이 비음화 되어 나타나는 비음 구간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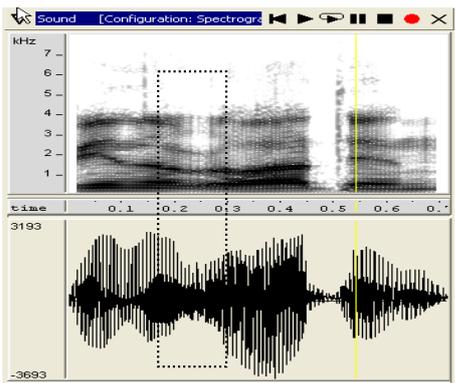


그림 5. Bin Laden (설측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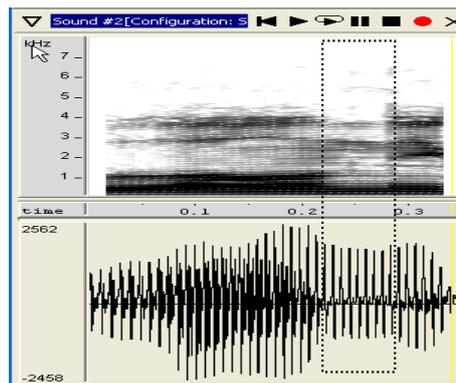


그림 6. lonely (비음화)

다음 <그림 7>은 B세트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오류 발화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으로 설측음화가 일어난 발화를 보여준다. 설측음 이전의 비음이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음 포먼트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본래의 설측음으로 인한 F1, F2의 하강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설측음화 된 [l]로 인해 하강된 포먼트들이 비음 구간의 개입 없이 다음 모음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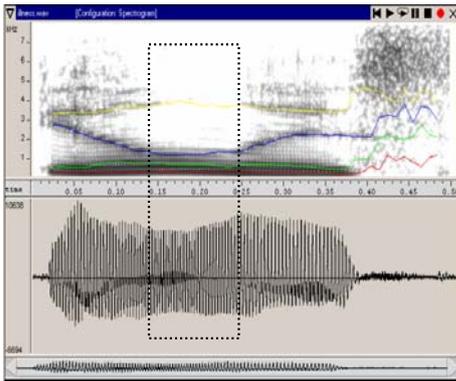


그림 7. illness (실측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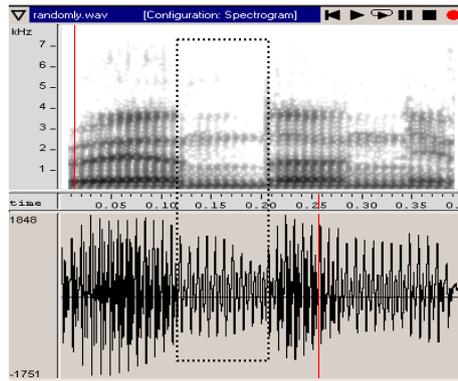


그림 8. randomly (비음화)

다음 <그림 8>은 C세트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오류 발화의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이며 비음화가 일어난 발화를 보여준다. [m]으로 인한 비음 포먼트가 나타나며, 계속해서 F1, F2의 하강 없이 다소 긴 비음 포먼트 구간이 이어지는데, 이는 뒤따르는 설측음이 구현되지 않고 선행하는 [m]에 의해 비음으로 동화된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 화자의 영어 발화 실험 결과를 살펴보았다.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이 비음과 설측음, 설측음과 비음을 연쇄를 올바르게 구현한 비율을 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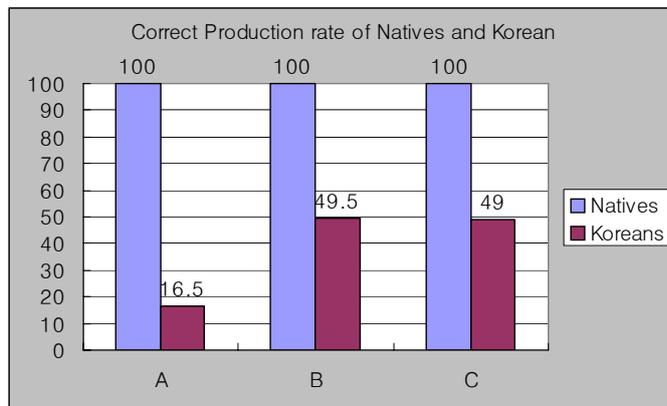


그림 9. 원어민과 한국인의 올바른 발화 비율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 모든 세트를 비음화시키거나 설측음화시키지 않고 구현한 반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각 세트를 원어민과 같이 동화현상을 나타내지 않고 발화한 비율은 각각 16.5%, 49.5%, 49%로 비음+설측음, 혹은 설측음+비음 환경비음화나 설측음화를 구현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n]-[l]의 연쇄에서는 비음화와 설측음화가 선택적으로 나타났고, [l]-[n]의 연쇄에서는 설측음화가 나타났으며, [m]-[l]의 연쇄에서는 비음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발

화에서 각 환경이 야기시키는 음운 현상과 동일하다. 즉, 한국어의 음운 규칙이 영어 발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결과에서 제시한 <그림 9>의 그래프를 다시 참조하여 보면,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올바른 발화 구현 비율이 A, B, C 세트에서 각각 16.5%, 49.5%, 49%로, A 세트에서의 오류 발화 비율이 세 세트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A세트의 [n]+[l]의 연쇄는 한국어에서 비음화와 설측음화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 A세트에서 가장 높은 오류 비율을 보인 것은 비음화와 설측음화가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B세트의 경우, 설측음화를 일으키는 오류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역시 한국어의 [l]-[n]의 연쇄에서는 설측음화만 나타나며 비음화는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며, 이 영향으로 영어에서도 해당 단어를 비음화 시키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설측음화의 오류만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 있다. B세트와는 반대로, C세트에서는 설측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음화를 일으키는 오류만이 발견되었다. 이는 C세트의 환경인 m-1의 연쇄가 한국어에서 비음화만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 세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의 비음화와 설측음화 규칙이 영어의 발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A세트의 경우 한국인의 발화에서는 해당 단어에 따라 비음화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와 설측음화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모두 나타났다. 한국인들이 A세트에서 만들어 내는 오류를 분석해 본 결과, 비음화를 일으키는 오류를 범하는지 설측음화를 일으키는 오류를 범하는지의 구분은 해당 목표 어휘의 정보구조(informational structure)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moonlight과 같은 단어에서는 주로 설측음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처럼 비음 [n] 다음에 light나 lamp와 같이 실질 형태소(full morpheme)로 구성된 어휘가 뒤따르는 경우에 설측음화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실질 형태소란 구체적인 대상, 동작, 상태와 같은 실제적인 어휘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의미한다. 실질 형태소는 그 자체가 의미적인 무게가 있으며, 정보성을 갖기 때문에, 화자들이 [n]을 포함하는 형태소를 발화할 때부터 바로 다음에 발화할 실질 형태소의 의미를 머릿속에 미리 그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l]로 시작하는 형태소를 발음하게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무게가 있고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소를 발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를 발음하기 이전에 발음해야 하는 [n]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실질 형태소의 첫 소리인 [l]로 동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lonely, moonless와 같은 단어들에서처럼 [n] 다음에 -ly, less와 같은 파생 형태소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비음화가 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파생 형태소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거나 의미를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서, 그것 자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 파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만큼의 의미적 무게나 정보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으므로 화자들은 [n]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뒤따르는 경우보다 파생 형태소가 뒤따르는 경우에 [l]을 발화할 것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들은 [n]을 충분히 구현하고, 충분히 구현된 비음은 뒤따르는

설측음에 영향을 미쳐 이를 비음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n-1 환경에서는 비음화와 설측음화의 오류가 모두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형태소의 의미적 중요성이 비음화가 나타나지 설측음화가 나타나는지의 선택에 관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비음+설측음, 설측음+비음의 연쇄가 하나의 억양구 안에서 발화되는 경우, 한국어의 비음화와 설측음화 규칙이 영어 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어민 화자의 음성 실현에서는 이 연쇄에서 동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해당 어휘를 비음화 시키거나 설측음화 시켜 발화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규칙을 영어의 유사한 환경에 과적용 시켜서 영어 발화에서도 오류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시 혼란의 여지없이 정확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면 화자가 정확한 발음을 통해 원활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과 관련된 보다 나은 영어의 발음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영어 발화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비음+설측음, 설측음+비음의 연쇄에서는 동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주지시키고,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영어의 발화에 과적용 시키지 않도록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옥미. 2003. *한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신지영, 차재은. 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서울: 한국문학사.
 이희천. 2002. *한국어 음운론적 특성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전상범. 2004. *음운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상훈. 2003. *중학생의 영어발음 오류 분석*.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homsky, N. & Halle, M.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Johnson, K. 2005. *Acoustic and Auditory Phonetics*. Blackwell Publishing.

접수일자: 2008. 8. 11

수정일자: 2008. 8. 26

게재결정: 2008. 9. 5

▲ 김미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u-taiji@korea.ac.kr

▲ 강선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dearsunny@korea.ac.kr

▲ 김기호 (교신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430
E-mail: keehokim@korea.ac.kr